

# 입주기업 · 지역 주민 의견 재생사업 반영

## 익산시, 내일 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익산시는 오는 20일 오후시에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고회는 입주기업, 유관단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참석 대상으로 하며, 그간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끝내고 이를 분석, 반영한 재생계획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이다.

익산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에 준공되어 40년이 넘는 노후산업단지로 건축, 교통, 기반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특히 도로 및 하

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5년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신부에서 공동 공모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사업과 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비를 매칭하여 총 210억원을 들여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조업실태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입지축면에 있어 출퇴근 용이, 인력확보 등 주변여건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주요 개선요구 사항은 주차시설(51.7%), 편의시설(31.0%), 환경기반시설(21.5%), 공원 및 녹지시설(20.1%), 도로(18.2%)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조사결과를 재생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산업단지 안에 전용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도로교통량을 감안한 도로 구조개선, 도로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하고 단위면적당 업체수와 근로자가 집중된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하에 매설

된 노후 상·하수도에 대한 재정비 공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입주기업과 지역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재생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 재생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세부 설계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용역을 내년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에 착수하고 2021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을 익산시장장은 "조성된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주차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계획 개편을 통해 산업단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보리자원 활용 다양한 체험거리 제공 군산콩당보리축제 내달 4일 개최

## 7일까지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들 축제장서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보리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콩당보리축제가 5월 4일부터 7일까지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들 축제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축제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8차례 이상의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축제 최종 실행안을 마련했으며 축제를 추진해 오면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 악기연주, 댄스 판소리, 난타 등 동호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룹들이 대거 참여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재능기부의 장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모세대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마

당 공연마당, 놀이마당 등의 프로그램과 어린이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린이 쉼터, 만들기 체험 꾸미기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보리밭을 거닐 수 있는 산책길과 쉼터는 물론 아름다운 작풍과 전시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마당 등 6개 부문 52개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들이 함께 군산콩당보리축제를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휴일기간이 길어 많은 가족단위 내방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군산시, 공연 · 문화한마당 등 프로그램 다채



군산시는 18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장종진)가 주관하고 군산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 및 1부 기념식, 2부 문화한마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장애인과 유공 공무원 표창에 이어 장애인 복지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부 문화한마당 공연에서는 10개 팀의 노래경연과 공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사회를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하나되는 즐거운 화합의 장 마련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란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18일 배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익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신용)가 주최하고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익산시립풍물단 풍물놀이 및 어양동 벨리

댄스 동아리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산건문 낭독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기념식 등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즐거운 화합의 장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능의

육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 군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군산시는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77개 배출사업장에 대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휴·장마철 등 취약 시기별 맞춤형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명절연휴, 먼지발생이 심한 봄철, 하절기·장마철 등의 취약시기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전년도 미점검 배출사업장과 중점관리 대상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3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해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폐수 무단 방류 1건, 배출허용기준초과 7건의 환경오염행위와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2건 등 총 24개 적발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및 새만금환경청, 전북도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점검횟수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등 체계적으로 배출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민간환경감사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시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인문백제' 인문강좌

## 5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인문백제(人文百濟) 인문강좌'를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는 지역,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학을 목표로 전라북도 지역민들이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문 연대의 주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인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인문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원광대 송산기념관 2층 제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지도답아들레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첫 강좌는 19일 원광대 최원규 교수의 '고고학으로 본 백제'를 주제로 시작되며, '백제문화와 인문정신(조병중 우석대 교수)', '공주, 부여, 익산의 세계유산(정재운 공주대 교수)', '유적·유물로 보는 백제의 사원(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백제문화와 불교 미술(김정희 원광대 교수)', '익산 문화유산과 디지털 아카이브(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매주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전북지역의 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발자취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지역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다양한 특별프로그램

## 오후 두 시, 미술관 책방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봄날이 가장 따뜻한 오후 두 시,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전시회 무료관람을 비롯하여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오후 두 시 미술관 책방은 소설·시·여행관련 도서를 비롯하여 잡지·동화책 등 익산시립도서관 사서(Librarian)가 추천하는 책 200여 권을 비치하고 빈백 쇼파·테이

블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 내부공간을 아늑하게 꾸몄다.

오후 두 시 미술관 책방은 문화와 예술이 조우하는 시정적 체험을 미술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시민들의 휴식에 예술적 감성을 더하는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풍경 : Landscape>에 출품된 현대미술 작품을 이해해 보는 작품 해설 프로그램은 매일 11시, 14시, 16시에 진행된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익산시 GUNSAN CITY